



2015학년도 1학기 정기 강의평가
• 기간 : 2015년 06.01(월) ~ 2015년 06.25(일)
• 대상 : 서울·국제캠퍼스 재학생(학부 및 대학원생)
• 대상 강좌 : 학부 및 대학원 전체 개설 강좌
• 성적 열람 및 공시기간 : 2015년 07.01(수) ~ 2015년 07.03(금)

예디, 공대 카페 임대차분쟁 9개월 째

KMC-KHAM-글로벌다이닝-개인사업자 꼬리무는 영업권 하청

KMC 명도소송 진행

최승욱 기자 dotori14@khu.ac.kr

【국제】 예술디자인대학관(예디)과 공과대학관(공대)의 카페가 임대차 분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매장에서 카드결제가 안되는 것도 이 임대차 분쟁탓으로, 조정절차가 끝날 때까지 운영문제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문제의 시작은 지난 2012년 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2012년 5월 학교법인 경희학원에서 전액 출자해 경희매니지먼트컴퍼니(KMC)를 설립한다. 수익사업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였다. 이어서 KMC는 자회사로 케이에이치아이자산운용(KHAM)을 세워, 캠퍼스내 카페를 중심으로 식음료사업을 벌였다. KHAM은 카페사업을

위해 예디와 공대, 서울캠퍼스 삼 의원기숙사 총 3곳에 대해 학교 측과 임대차 계약을 맺고, 영업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KHAM은 카페를 직접 운영하지 않고, 주식회사 글로벌다이닝과 '위탁운영계약'을 맺어 '외주'를 했다. 계약내용을 살펴보면 '글로벌다이닝'은 원자재를 공급하고 직원을 고용해 카페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KHAM은 발생한 '매출의 88%'를 글로벌다이닝에 지급했다. 당시 수익에 대해 KMC 측은 "카드수수료를 내고 나면 남는게 없다"고 설명했다.

전기세, 광열비 등도 KMC가 학교에 납부했다. 더불어 '학생편의 및 복지증진' 명목으로 카페 인테리어까지 교비로 부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조건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출의 88%'를 지급하는 조건



예디 1층·공대학생 식당 옆 카페가 파행 운영 중이다

으로 계약이 체결됐다.

이후 2013년 7월, KMC는 자회사 KHAM의 식음료 사업부문을 이관 받아 직접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직접운영의 결정적인 배경은 '장애인고용 분담금은 민간기업 기준 상시근로자의 2.7% 이상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을 경우, 기업이 범률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다. 2013년 12월 기준 경희학원은 약 7억원을 납부했다. KMC 홍상일 실장은 "KMC가 직접 카페사업을 하면서 장애인을 고용하게 되면, 이 직원이 학교의 고용자 수로 인정 돼 부담금을 덜 수 있다"고 설명했다.

▶4면으로 이어짐

O&P 학과평가 최우수

아동가족학과, 원자력공학과 정보디스플레이학과, 컴퓨터공학과

단과대학행정실, 한의대 최우수

미정원, "정원감축 지표 사용계획 없어"

'2014 O&P평가' 결과발표

이진우 기자 urusa93@khu.ac.kr

2014 'Organization & Program Review(O&P)' 평가 결과 중 학과부문에서 아동가족학과, 원자력공학과, 정보디스플레이학과, 컴퓨터공학과 4개 학과가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단과대학 행정실 부문에서는 한의과대학이 최우수 등급을 기록했다.

O&P평가는 우리학교의 자체분석을 통해 한해동안 각 단위의 성과를 돌아보고 개선점을 찾기위해

지난 2009년 도입됐다. 하지만 그동안 O&P평가가 우리학교 학과간 비교에 그쳐, 학과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이번 평가에서는 주요대학과 비교해 결과를 산출했다. 미래정책원 학술진흥팀 김성환 계장은 "생물학과의 경우 석사 이상 학위를 취득하는 비율이 높아 다른 학과에 비해 취업률이 낮다"면서 이번 평가는 다른 대학의 유사학과와 비교해 특성을 반영한 평가가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3면으로 이어짐

	최우수	우수
인문·사회·체육	아동가족학과	경영학부 사회과 주거환경학과 철학과 Hospitality경영학부
자연·공학	원자력공학과 정보디스플레이학과 컴퓨터공학과	건축공학과 응용물리학과 정보전자신소재공학과
의·약·간호학	-	간호과학대학 의과대학
예능	-	무용학부
전문원	-	치의학전문대학원
특수원	-	관광대학원
단과대학 행정실	한의과대학	간호과학대학 공과대학 무용학부

인간들을 이야기하다. 헤로도토스의 《역사》

후마니타스칼리지 - 대학주보 공동기획, 고전의 사계 ⑯

고 원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리디아의 왕 칸다올레스는 자신의 아름다운 아내를 지극히 사랑했다. 다른 사람에게 과시하기를 좋아했던 칸다올레스는 자신이 종애하는 신하 기계스에게 왕비의 아름다운 몸매를 자랑했고 급기야는 그녀의 벗은 몸을 몰래 훔쳐볼 것을 제안했다. 왕의 거듭된 성화에 밀려 기계스는 왕비의 침실에 숨어들었고 그녀가 옷을 갈아입는 장면을 훔쳐본 뒤 빼져나왔

다. 기계스의 도망가는 뒷모습을 본 왕비는 다음날 그를 불러 정숙한 여인의 몸을 볼 수 있는 자는 남편 밖에 없음을 강조하면서 기계스가 스스로



《역사》의 본래 주제는 페르시아와 그리스 국가들의 전쟁이지만 다양한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다.

자결하던가 아니면 왕을 죽이고 자신의 남편이 되던가 둘 중 하나를택 하도록 요구했다. 기계스는 칸다올레스를 죽이고 새로운 왕이 되어 왕비를 자신의 아내로 맞았다. 리디아인들은 왕을 살해한 기계스에 대해 분노했지만 멜로이의 신탁이 기계스를 지지하자 어쩔 수 없이 그를 새로운 왕으로 받아들였다. 하지만 그 신탁은 기계스가 신관들에게 은밀하게 제공한 금은의 덕이었다.

고대 그리스 역사가 헤로도토스의 《역사》(BC 450-420 추정)는 리디아의 메름나다이 왕조를 창시한 기계스의 이야기에서 시작된다. 기계스는

훗날 플라톤의 《국가》에도 등장하지만 신화처럼 묘사되는 플라톤의 이야기에 비해 헤로도토스는 리디아 역사의 일부분으로 기계스를 설명했다. 신화적인 요소를 최대한 배제하고 실제로 벌어졌던 일들만을 이야기하는 헤로도토스의 방식은 당시 매우 새로운 것이었으며 그래서 키케로는 그를 "역사의 아버지"라고 불렀다.

《역사》의 본래 주제는 페르시아와 그리스 국가들의 전쟁이지만 실제 내용은 잡다하다 싶을 정도로 다양한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다.

▶7면으로 이어짐

알림

사령(명) 수습기자

- 강경진(스페인어학 2014)
강규연(의류디자인학 2014)
고상아(연극영화학 2015)
김규래(경영학 2012)
김다솔(중국어학 2015)
김도엽(정치외교학 2012)
김예준(일본어학 2015)
김정원(유전공학 2015)
김종완(화학 2015)
류제원(지리학 2015)
- 박새롬(언론정보학 2014)
양진원(생물학 2014)
이성민(프랑스어학 2015)
이소진(일본어학 2014)
이수형(경제학 2015)
장연수(중국어학 2014)
정혜빈(원예생명공학 2015)
조민호(관광학부 2015)
최병현(경영학 2015)
최재원(철학 2015)

다음 제1592호는 6월 8일에 발행됩니다.
대학주보 온라인 기사는 계속 연재됩니다.
media.khu.ac.kr/khunews

시선

사설

법인, 재정운영 능력 기반 탄탄히 해야

지난 13일, 경희매니지먼트컴퍼니(KMC)가 글로벌 다이닝에 대한 명도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이번 명도소송의 책임은 명백히 ‘위탁운영’의 책임자인 글로벌다이닝 측에 있다. 글로벌다이닝은 KMC의 자회사인 케이에이치아이자산운용(KHAM)과 교내 3개소의 카페에 대해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할 당시 원자재 수급과 직원 고용 등을 포함해 카페 운영에 대한 책임을 모두 담당하는 것으로 계약을 맺은 바 있지만, 계약 체결 이후에는 임의로 개인사업자에게 영업권을 넘긴 후 권리금과 임대금 등만 행거운 것으로 드러났다.

애초부터 ‘카페 시설의 원활한 운영’보다는 ‘거기에 서 나오는 수익’에만 관심이 있었던 셈이다.

위탁운영계약을 단지 눈앞에 놓인 불로소득의 도구로 악용한 글로벌다이닝 측의 모럴해저드로 인해 빛 어진 일련의 이 사태를 바라보면서, KMC와 KMC에 전액출자한 법인 경희학원은 통렬한 반성을 해야 한다. 지금에 와서 돌이켜볼 때, 이 위탁운영계약은 계약 내용부터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들로 가득하다. 카페 설립을 위한 인테리어·설비 등을 교비에서 부담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계약은 카페 매출수익의 무려 88%를 글로벌 다이닝 측에 지급하기로 명시되어 있다. 카페 운영에 필요한 전기세, 광열비 등도 KHAM이 납부하는 조건이었다. KMC 측이 스스로 언급한 대로, 이 계약은 ‘카드 수수료 외에는 남는 것이 없는’ 굉장히 이상한 계약이다.

KMC는 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을 위해 법인에서 3억 원의 출자금을 내어 만든 회사다. KMC의 설립 목적은 단연 ‘수익 창출’에 있다는 것이다. 이는 우리학교 재정의 높은 등록금의존율에 대한 대안으로 모색된 재정수익다면화전략의 일환이었으며, 따라서 KMC의 운영 양상에는 법인의 재정운영 능력이 고스란히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KMC는 등록금의존율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을 정도의 유의미한 수익창출은 고사하고, 꾸준히 여러 가지 문제점을 노출해왔다.

지난 2013년에는 누적손실 124억 원, 부채 393억 원과 같은 수치들로 구성원에게 충격을 안겨줬던 바 있으며, 지난 2월 23일에 있었던 2014학년도 제7차 이사회에서는 KMC의 정상화를 위해 법인에서 10억 원을 증자해 달라는 안건이 참석이사 만장일치로 통과되기도 했다. 재정 수익을 위해 설립한 회사에 되려 지속적으로 재정이 투입되고 있는 형국이다. 거기에, 이번 글로벌다이닝과의 위탁운영계약 건을 둘러싼 이슈가 등장하면서 이제 KMC와 법인은 ‘현명하게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능력’에 대한 구성원들의 의구심 섞인 시선 앞에 서게 됐다.

교원징계와 관련된 법인의 솜방망이 식 처벌에 대해 많은 문제제기가 나오고 있는 현 상황에서, 재정적 부문에서마저 구성원들의 믿음을 잃는다면 과연 어떤 구성원이 법인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겠는가. 이제, 법인은 구성원에게 ‘말’이나 ‘계획’이 아닌 가시적인 성과를 내놓을 때가 됐다. 법인을 향한 구성원의 엄혹한 시선이 ‘경희의 미래’에 대한 낙담의 눈길로 변하기 전에 말이다.

네팔 구호 기금 모금 중 온라인·청운관서 참여 가능

미디어 여론동향 2015. 5. 18 ~ 5. 24

여론동향팀 khunews@khu.ac.kr

지구사회봉사단(GSC)이 네팔 지진피해 긴급구호 기금을 모금하고 있다.(네팔을 위해 진심으로 기도 합니다!/대학주보 온라인, 2015.5.21) 온라인은 오는 31일까지 ‘기아대책’ 홈페이지(<http://www.kfhi.or.kr>)에서, 오프라인의 경우 청운관 1층 로비에 설치된 부스를 통해 성금을 낼 수 있다. 온라인 모금은 최소 3만 원 이상을 기부해야 하며, 오프라인은 별도의 제한이 없다. 모금된 기금은 기아대책에 전달해 네팔 북부 산간지방인 ‘신두부족’의 재건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모금활동과 더불어 온라인 희망메시지 캠페인도 진행 중이다. ‘지구사회봉사단 페이스북 페이



이주의 주제 - 학과간 전공기초 인정여부

경직된 학사제도, ‘유연성’이 필요하다

이시은 기자
dltldms77@khu.ac.kr

학사제도를 취재하다 보면 가장 많이 듣는 말마다. “다른 곳은 잘 모르겠고 저희 학과에서는…” 학과들이 지마다의 규칙을 세울수록, ‘통섭’이라는 단어가 무색하게 타 전공의 벽은 높아진다. 심지어 이원화 캠퍼스인 우리학교의 경우 문제는 더 복잡해진다. “그쪽(타 캠퍼스)일은 저희도 잘 몰라요”는 두 번째로 많이 듣는 말이다.

우리학교에는 81개 학과가 있다. 학문적 특수성 탓에 각각의 규정을 모두 외우고 있으라고 요구할 수는 없다. 그래도 이쯤 되면 서로 너무 관심이 없지 않나 싶다. 기준을 정해줄 곳은 결국 대학본부다. 하지만 세 번째로 많이 듣는 이야기는 “학과의 의견에 따라…”다. 대학본부까지 한 발 물러선 상황에서 결국 ‘목마른’ 학생들만 직접 동분서주하고 있다.

취재과정에서 다전공·전과 시 ‘물리학’과목 등에 관련한 캠퍼스 내부에서의 유사 전공기초 인정 여부부터 양 캠퍼스 후마니타스 칼리지 간 행정 이원화, 국제학과의 일부 전공과목이 각 캠퍼스끼리 서로 인정되지 않는 상황까지 만났던 사례는 다양했다. 만났던 학생들은 실제로 느끼게 되는 학과간의 ‘벽’ 때문에 학업에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개중에는 자연되는 학업에 고심하다가 다전공을 포

기하는 사례도 종종 있었다. 사실 이미 기사화됐던 ‘서울-국제 자연계열 전공기초’ 문제도 같은 맥락의 일이다.

국제캠퍼스에서 ‘미분적분학’을 수강했던 박군은 서울캠퍼스 정보디스플레이학과를 다전공하며 사실상의 동일과목인 ‘미적분학 및 연습’을 다시 들어야 하는 상황이었다. 국제학과 서군의 경우도 마찬가지. 국제학과의 ‘Introduction to Economic I’와 서울캠퍼스 개설강좌인 ‘경제학원론’의 경우 각 행정실에 문의결과 ‘국문명이 다르므로 인정할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됐다. 이처럼 캠퍼스 내·외부에서는 지금까지도 교재나 내용적인 면이 동일·유사한 과목들에 대해 ‘전혀 다르다는’ 엄격한 장대를 들이밀고 있다.

물론 해당 학과의 판단은 중요하다. 학과에서 어떤 목표를 세우고 학생들을 이끌고 갈 지의 결정권은 전적으로 학과에 있다. 하지만 서로가 인접 학문에 대한 효용의 ‘폭’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학생들은 결국 학문 간의 ‘융합’을 만날 수 없다. 더불어 행정적 통합의 노력이 수반되어야만 할 것이다.

수많은 운영 지침들이 얹히는 가운데, 이 모든 경우를 관통하는 획일화된 규정을 만들 수는 없다. 하지만 동일한 내용의 기초과목에 있어서 개설단위를 통일하거나, 유사과목에 대해 해당학과 교수가 수강 인정 여부를 가릴 수 있는 공식적인 ‘프로세스’ 정도를 마련하는 일은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이런 조치들을 통해 학생들의 부담은 한결 줄어들 수 있고, 나아가 학문간 융·복합을 토대로 창의적 인재를 기른다는 목표도 수사에 그치지 않을 것이다.

‘지’의 네팔관련 게시글을 공유하고 응원하는 댓글을 다는 것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추첨을 통해, ‘Pray for Nepal’ 물병을 증정한다.

제18회 세계 외국인 한국어 말하기 대회가 지난 14일 크라운관에서 개최됐다.[제18회 세계 외국인 한국어 말하기 대회 개최]39개국 1,241명 지원…각종 한국어 말하기 대회 수상자 대거 참여/대학 홈페이지 Focus, 2015.5.20) 39개국 1,241명이 지원한 예심을 거쳐 최종 13개국 16명의 외국인들이 본선에 진출했다. ‘한국에만 있다! 없다!’와 ‘한국 문화 체험’을 주제로 열린 이번 대회에서 참가자들은 국악의 매력, 독도의 아름다움, 친절한 서비스, 24시간 배달 문화 등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줬다. 대상은 몽골 유학생 윤치코타크 오양가 학생이 수상했다. “다양한 음식을 장소 불문하고 24시간 배달이 가능한 한국의 배달문화에 감탄했다”는 그는 야식을 즐기며 2달 동안 체중이 12kg 늘어난 경험을 소개하며 “한국의 배달문화를 제대로 체험했다”고 전했다.

우리학교와 양평군 ‘황순원문학촌 소나기마을’이 제4회 황순원 사이버 백일장을 개최한다.(경희대, 제4회 황순원 사이버 백일장/서울경제, 2015.5.20) 올해로 4회째 개최되는 백일장은 소설가 황순원 선생(1915~2000)의 문학적 업적을 기리고 ‘황순원문학촌-소나기마을’에 대한 범국민적인 관심과 문학인의 참여를 촉진, 건전한 정서를 함양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번 백일장의 장르는 수필이며 주제는 ‘아버지’다. 접수는 오는 31일까지이며, 당선자 발표는 오는 6월에 한다. 시상식은 9월 13일 황순원문학관에서 열린다.

‘당신’을 기억하고 감사해
하는 이가 많다고 믿습니다

세시봉

백승철 (편집장)



당신을 늘 기억하다는 것은 쉽지 않았다. 당신은 대개 구석진 곳에 쉬었다. 일하는 모습도 눈에 띄었지만, 보고도 어물쩍 지나가기 일수였다. 그런 스스로를 무관하게 여겼지만, 어느새 잊고 살았다. 새삼 당신을 상기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건’ 같은 것이 필요했다.

얼마전 서울여대 종학생회(총학)는 당신들이 걸어 놓은 현수막을 철거했다. 축제를 앞두고, 미관상 좋지 않다는 이유였다. 여론은 분분했다. 서울여대 종학은 해명하는 공지글을 페이스북에 게시하고, 곧 틴트를 나눠주는 이벤트 소개글을 올렸다. 생존, 위기, 분노가 당신의 이야기는 누군가에겐 그 정도의 일이었다.

댓글들을 읽어내려갔다. 분노는 서울여대, 나아가 여성 등을 대상으로 겉거리를 뻗어갔다. 서울여대 학생들도 종학의 행동에 분개했다는 점이나, 당신 중 대부분이 여성이라는 사실은 혐오의 흐름 속에서 중요하지 않았다. 곧 당신은 뒤로, 뒤로 또 밀려났다.

혹시 이쯤 읽고도 당신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닦여있는 책상’을 들여다보라고 권하고 싶다.

“막막한 우리에게 학생들의 연대와 지지는 어두운 동굴 속 등불과 같았습니다. 명문은 학생들이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도 학생들이 조금 나아지지 않았느냐고 당신께 묻고 싶다. 덕성여대 종학은 오는 28일부터 축제에서 당신들과 함께 연대주제를 열기로 했다. 수익금은 당신의 근로환경 개선에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우리학교에서도 2주간 열리는 대동제 기간 동안 학생들이 뒷정리에 나름 공을 들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침이 밝으면 토사들이 묻은 변기가 당신을 기다렸다. 하나의 단과대학 앞 바닥에 구르는 쓰레기를 줍고 나니 3봉지나 됐다. “좋아졌다. 고맙다”는 당신의 말을 듣기에 민망했기에, ‘더 좋아지겠다. 감사하다’는 말은 속으로 삼켰다.

여전히 이글을 읽는 이가 당신이 누군지 확신하지 못한다면, 아름다운 캠퍼스 풍경이 무참해질 것이다.

지난 11일 연세대 송도캠퍼스에 붙은 당신의 대자보를 접했을 때를 떠올렸다. “막막한 우리에게 학생들의 연대와 지지는 어두운 동굴 속 등불과 같았습니다. 명문은 오아시스였습니다.” 공부만 하고 주위를 챙길 줄 모른다는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명문은 학생들이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대자보를 다 읽고 이렇게 중얼거렸다. ‘명문을 만드는 학생들, 그 학생을 만드는 일에는 당신도 꼭 필요하다’고.

이글의 마지막 문단을 남기고 당신이 누구인지 밝히는 것이 옳은지 고민했다. 그러나 끝까지 당신의 다른 이름을 적지 않기로 했다.

여전히 부족하고, 더 나아져야겠지만 당신을 기억하고 또 감사해하는 이가 많다고 믿기 때문이다. 우리도 명문을 만들어가겠다.

알림

대학주보에

당신의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대학주보는 늘 열려있습니다. 여러분이 겪은 모든 일을 이야기해주세요. 무엇이 라도 좋습니다. 사소한 추억부터 어려운 상황까지 함께 나눠주세요. 늘 당신의 옆에 있겠습니다.



http://www.mediakhu.ac.kr/khunews/inform_us_list.asp

교훈 학원의 민주화 | 사상의 민주화 | 생활의 민주화 경희대학교

대학주보

1955년 5월 12일 창간(주간)
발행·편집인 조인원 | 주간 김민진 | 편집장 백승철 | 제작/인쇄 중앙일보미디어디자인(주)
구독료 1년 1만원 | 구독 02-961-0093-4 | 주소 경기 02-441-7317(인터넷기획)

인터넷 대학주보 <http://mediakhu.ac.kr> | 이메일 khunews@khu.ac.kr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회기동) | Tel 02-961-0093-5

국제캠퍼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대덕대로 1732(서천동) | Tel 031-201-3230-2, FAX 031-204-8121

보도

경희의료원 문화복지센터 개관 후에도 ‘갑론을박’

문화복지센터 논란

박기윤 기자 kyooin7230@khu.ac.kr

‘문화복지센터’(가칭)가 지난 11일 공식 개관됐다. 지하1층부터 지상3층까지 총 4층 규모인 문화복지센터에는 총 15개의 프랜차이즈 업체가 입점했다. 아직 엘리베이터 공사 등 마무리작업이 진행 중이지만, 개관 당일부터 영업은 시작됐다.

지하 1층과 지상 2층은 식사를 할 수 있는 식당들이 위치하고 있다. 지상 1층에는 카페 다섯 곳을 비롯해 김밥, 도식당 전문점, 편의점 등이 입점했고, 지상 3층에는 레스토랑이 들어섰다. 경희의료원은 문화복지센터의 임대 수익을 암센터 건립 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하지만 문화복지센터에 대한 구성원의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개관 이전부터 건물 디자인을 두고 많은 이견들이 오간 가운데, 총학생회는 공식 개관 당일 기자회견을 열고 공유되지 않은 정보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총학생회 강필준(자율전공학 2012) 부회장은 “속칭 ‘노란건물’로 불리던 문화복지센터에는 15개의 프랜차이즈 매

장이 입점해 있다”라며 “암센터를 짓기 위해 계약을 맺은 것 외에 학생들에게 알려진 정보가 거의 없다”고 말했다. 더불어 “최초 계획안에는 청운관 쪽 출입구에 대한 계획은 없었다”며 “이것은 학생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상술”이라고 말했다.

총학, “문화복지센터가 구성원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

더불어 서울캠퍼스 내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생활협동조합(생협)과 비교해 문화복지센터가 구성원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생협의 경우 매장 내 제품가격도 비교적 저렴한데다가 수익금을 학생들에게 장학금 형식으로 환원하고 있는 반면, 일반 프랜차이즈 업체의 수익은 학교 측에 지불하는 임대료를 제외하고 구성원에게 아무런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경대학 학생회 권예하(언론정보학 2009) 회장은 “생활협동조합과 프랜차이즈 업체 사이 가장 큰 차이점은 그 수익금이 누구에게 돌아오느냐는 점이다”라며



경희의료원 문화복지센터를 두고 논란이 많다

“프랜차이즈업체는 그 수익금이 업체에 귀속되지만, 생활협동조합은 그 수익금이 구성원에게 돌아오는 선순환 구조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생활협동조합의 선순환구조를 지키기 위해, 저 건물에서 나오는 수익금이 어떤 식으로 사용될 것인지에 대해 학교는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생협 측은 문화복지센터가 개관되고 1주일 만에 매출 하락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생협 관계자는 “학교는 프랜차이즈와 생협 간의 균형을 맞춰 구성원에게 돌아가는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희의료원 측은 문화복지센터와

생협의 역할이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대한 협력하겠다는 입장은 전했다. 경희의료원 관계자는 “업체와 계약할 때 학생들을 위한 할인혜택을 주기로 했다. 학생증을 제시하면 5~10%의 가격할인 혜택을 제공한다”며 “업체 역시 겸증된 프랜차이즈 업체만 선정했다”고 말했다.

경희의료원, “문화복지센터와 생협의 역할은 다르다”

한편, 지난 19일 총학은 한군데 서울부총장을 만나 문화복지센터와 앞으로 학내에 들어설 업체들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총학 강필준 부회장은 “학내에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많다”며 “경영대학이나 문화복지센터 청운관 입구 같이 구성원의 동의가 없는 부분은 지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한군데 부총장은 “문화복지센터는 병원 쪽 건물이기 때문에 관여할 수 없다”며 “하지만 앞으로 입점할 업체에 대해서는 학생들과 충분히 의견을 교환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 1면에서 이어짐

KMC는 위탁운영계약 만료 3개월 전인 2014년 6월, 글로벌다이닝에 위탁계약을 연장할 뜻이 없음을 서면으로 밝히고 직영 준비를 시작했다.

그리고 한 달뒤인 7월 중순, 예디·공대카페의 운영자가 “우리들은 글로벌다이닝의 직원이 아니라 글로벌다이닝으로부터 영업권을 받은 개인사업자”라며 KMC에 ‘퇴거 할 수 없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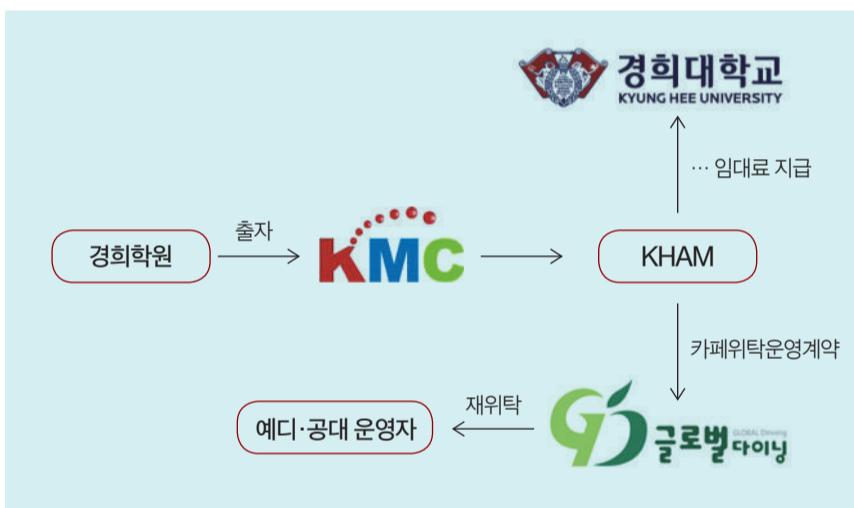
카페운영자들의 이야기대로라면 KMC의 자회사인 KHAM으로부터 위탁운영권을 받은 글로벌다이닝이 다시 운영권을 개인사업자에게 넘긴 셈이다. 결국 2중, 3중으로 꼬인 운영권 탓에 직영 전환은 발목잡혔다. 상황을 파악한 KMC 측은 글로벌다이닝의 예수보증금과 직전 3개월 매출금에 대한 정산을 보류했다. 흥실장은 “처음 직영운영을 준비할 때는 이런 복잡한 사정이 있는 줄 전혀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우리신문은 글로벌다이닝 측에 취재를 요청했으나, 대표이사의 해외출장으로 진행하지 못했다.

지난해 8월 KMC는 본격적으로 카페운영자와 협상을 시작했다. 하지만 협상은 지지부진했고 계약종료일인 8월 31일까지 진전이 전혀 없었다. 문제를 풀고자 KMC는 영업허가를 담당하는 기흥구청에 민원을 제기했으나, 기흥구청에서는 ‘현재로서는 구청에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통보했다. 이 사이 KHAM은 KMC에 영업양도를 했고, 영업권이 이전되면서 KHAM의 사업자등록은 말소됐다. 자연스레 카드가맹계약도 해지돼, 이때부터 예디와 공대 카페의 카드결제가 불가능해졌다.

카드결제 불가 피해 구성원에게

세무서는 KMC에 관련 경고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카페를 이용하는 구성원에게 돌아갔다. 카드결제, 현금영수증 발행거부가 반복됐고, 일부 이용자들이 참다못해 민원을 제기했다. 민원을 접수받은 용인시 세무서는 카페 운영자가 아닌, KMC에 경고장을 발송했다. KMC에



서 나름의 상황을 소명했지만, 세무서로부터 ‘서류상 영업자가 KMC로 돼 있기 때문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KMC가 운영자에 대해 개인정보를 갖고 고발해야 한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그렇게 문제는 9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예디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서민경 씨도 이상황이 답답하다. 서 씨는 “KMC에서는 글로벌다이닝과 자신이 해결해야 하는 문

제라고만 한다”며 “들어 올 때 보증금 외에 권리금 4천만원을 지불했다. 이것이 그 날 날아가게 생겼는데, KMC는 ‘계약연장은 없다’는 말밖에 없어 분통이 터진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을 풀기위해 KMC는 우선 카페 운영자들에게 샌드위치·커피 원두 납품권을 주거나, KMC의 직원으로 고용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 더불어 글로벌다이

닝과의 법률대응 공조도 제안했다. 흥실장은 “법적인 의무는 없지만 도의적인 차원에서 제시한 것”이라며 “이렇게나마 운영자들의 손실을 덜어주고자 했다”고 밝혔다.

KMC, “적극 대응하겠다”

글로벌다이닝 상대 명도소송

또한 지난 13일 글로벌다이닝에 대한 명도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냈다. 명도소송은 소유자가 자신의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불법점유자를 상대로 그 부동산의 명도를 법원에 청구하는 소송이다. 명도소송에서 승소하면 강제집행으로 이어진다. KMC측은 “영업을 하지 못하는 두 곳에 임대료도 학교 측에 남부하고 있다”며 “교내이기 때문에 강제로 집기를 정리하는 물리력을 사용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소극적인 대응을 해왔다. 하지만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는 만큼 소송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취업진로 프로그램 안내

1. 캠퍸스 리크루팅(기업체 채용설명회 및 면담)			
행사명	모집부문	일시	장소
대통령경호실 경호경무원 채용면접	공체 18기 특정직 7급 (경호, 정보통신)	5. 28(목) 13:00~17:00	청운관 1층 상담실

2. 1:1 취업진로지도 맞춤 컨설팅(취업상담)
- ◆ 대상 : 경희대학교 학부 재학생, 졸업생
 - ◆ 상담 내용 : 기초캐서 및 이력서 작성법 지도, 면접스킬 지도, 기업 및 직무 분석법, 로스쿨 진학 등
 - ◆ 상세 내용

상담유형	컨설팅 트	일 시	장 소	신청방법
개인 상담	분야별 컨설팅 4명	월 ~ 금 (각 컨설팅별 일정 상이함)	온비즈 354호~355호 제2법과대학 107~108 취업진로지원처	온라인 접수 제작된 일정 제작된 일정 제작된 일정
집단 상담	이종구 교수 (취직처 연구실장) 금융권, 대기업 상담	월 18:30~19:30 (매월 1~2회)	네오관 103호	온라인 접수 제작된 일정 제작된 일정 제작된 일정
On Line Off Line 상담	한상백 팀장 (취업지원팀)	상 시	On Line (hansb@khu.ac.kr) Off Line (취업진로지원처)	On Line (hansb@khu.ac.kr) Off Line (취업진로지원처)

- ◆ 주의사항
- 상당 당시 날 취소 불가
(상당 당시 전날까지만 가능, 취소시 전화연락)
 - 이력서와 자기소개서에 대한 피드백이 필요한 경우 당일 2부씩
프린트해서 자참(필수)

자세한 사항은 취업진로지원처 홈페이지 <http://job1.khu.ac.kr>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khujob>
연락처 02-961-0167~8, job@khu.ac.kr
위치 청운관 1층 학생생활지원처

“나의 선택! 취직인가? 취업인가?”

어떤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

특강자 : 배양숙

장 소 : 서울캠퍼스 종양도서관 1층 시청각실

일 시 : 2015. 6. 5 (금) 15시

현직

- 삼성생명 FC영예사업부장보
- 수요포럼 인문의 숲 대표

경력

- 서울인문포럼 집행위원장(2014~현재)
- 수요포럼 인문의 숲 대표(2014~현재)

저서

- ‘걷는 자 달고, 행하는 자 이룬다」(강같은평화), 2011

방송

- EBS 성공시대
- MTN(머니투데이) 이의정의 라이프매거진
- CBS 이홍렬의 편편한 복카페
- 한국경제TV 성공스토리 ‘만남’
- 울산MBC 토크콘서트 ‘GO STOP쇼’
- EBS라디오 명사가 읽어주는 책 한권
- EBS 다큐멘터리 2015 서울인문포럼
- ‘인문학 삶의 새로운 지평을 열다’

서울캠퍼스 취업진로지원처

2015학년도 후기 석사과정 신입생 모집

○ 모집학과 및 전공	학 과	전 공
구 분	글로벌기업법학과 공공법학과 석사과정 중국법학과 지적재산법학과 조세법학과	글로벌기업법전공, 미국법전공 입법전공, 공법전공 중국법전공 지적재산법전공, 인터넷법전공 조세법전공
장학제도	장학금	지급기준
구 분	수업료 13%	본교 등록 및 호텔경영전문대학 등록
장학금	20%	공무원, 군인, 정부부처기관 재직자
외국인장학	30%	정원 외로 입학한 외국인
평생교육장학	20%	경희사이버대, 서울디자인대, 열린사이버대 졸업(예정)자
조교장학	50~100%	행정조교 또는 연구조교에 지원하여 임용된 학생

※ 국가고시장학, 성적장학, 모범장학, 총장장학 등 기타 장학제도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 강의 – 주중(야간) 및 주말 개설

○ 경희전형 일정

- 원서접수 : 2015. 5. 26(화) ~ 6. 12(금)
- 전형 일 : 6. 13(토) 10:30
- 접수방법 : 우편접수, 방문접수, E-mail접수(khsb2670@khu.ac.kr)

○ 전형료 : ~ ₩50,000(입금계좌: 하나은행 278-910030-40505/예금주: 법무대학원)

○ 제출서류

- 입학원서(소정양식) 1부 – 본 대학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대학교(학부) 출입증명서 1부
- 학업계획서 1부

※ 문의처

- 전화 : 02 - 961 - 0905 ● 홈페이지 : interlaw.khu.ac.kr

제 18회 경희대학교

대학생 창업경연대회 개최

참가 및 제외대상

※ 일반

다전공·전과 시 유사 전공기초 인정 학과마다 '제각각' 후마니타스 교양과목도 캠퍼스 간 수강 일부 인정 안돼

학과간 수강과목 인정 여부

이시은 기자 dtldms77@knu.ac.kr

지난 1585호에서 우리 신문은 '캠퍼스 간 자연계열 전공기초 불인정' 문제에 대해 다룬 바 있다. 이 같은 '유사 전공기초 과목'에 관련한 문제들은 자연계열을 포함해 캠퍼스 내·외부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었다. 해당 경우마다의 학과별 상이한 인정기준은 학생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었다.

응용물리학과에서 원자력공학과로 전과를 신청한 A양은 전공기초 과목 인정여부를 찾아보다가 당혹스러운 사실을 접했다. A양은 이전 학과에서 응용물리학과의 물리관련 전공기초 과목인 '물리학I'(3학점)과 '물리학 실험I'(1학점)을 이수했다. 하지만 원자력공학과 행정실 측은 이 과목들이 원자력공학과에서 인정하는 물리 관련 기초과목이 아니라는 이유로 원자력공학과의 개설 과목인 '물리학 및 실험I'(3학점)을 다시 신청하라고 안내했다. A양은 "응용물리학과에서 들었던 물리 기초 과목은 원자력공학과의 '물리학 및 실험I'와 동일한 내용을 포함하는 것은 물론이고 훨씬 깊이 있는 내용이었다"며 "이런 방침이 행정적으로는 편리할지 몰라도 학생 입장에서는 반복해서 다시 들어야하는 과목 하나하나가 부담이 된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양은 결국 '물리학 및 실험I'를 다시 수강할 수밖에 없었다.

학생, "반복해서 들어야 하는 과목 하나하나가 부담이 된다"

이에 대해 원자력공학과 행정실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원자력공학과에서 규정하는 물리기초 과목을 수강해야 이수 인정이 되는 것이며, 타 학과에서 물리 관련 기초과목을 이수했다 하더라도 우리 과에서 인정하는 학과과정에 없는 과목일 경우 이수 인정이 불가하다"고 밝혔다.

이 같은 '유사과목에 대한 인정여부'는 주로 학과 시행세칙에 의해 결정된다. 위의 사례에서 김 양이 만일 전자·전파공학과로 전과를 했다면 전공기초 과목을 이수



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 전자정보대학에서는 응용물리학과의 '물리학I'과 '물리학 실험I'를 수강한 학생이라면 '물리학 및 실험I'를 수강한 것으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다른 사례에서도 나타난다. 공과대학 학생이라면 누구나 이수하는 전공기초 과목인 '공학프로그래밍 입문', '공학수학' 등의 전공기초 과목의 경우, 지난해부터 학과 별로 서로 다른 학수번호를 부여하여 공식적으로는 학과 간의 인정을 불허하고 있는 상태다. 이러한 조치로 인해 현재 공과대학 내에는 '공과대학 전체 개설단위'의 전공기초 과목은 존재하지 않는다.

학사지원과 김경희 과장은 "재수강 문제 등 때문에 전공기초 학수번호를 부여할 때 공과대학 측에 여러가지 가이드라인을 주기는 했었다"며 "하지만 공대 측에서 전공기초라 하더라도 학과간 내용이 조금씩 다르게 가고 있다는 입장은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공과대학 학과사무실 관계자는 "16년 학사제도 개편을 앞두고 현재 제도가 변화하는 중에 있으며 (공과대학이) 향후에는 각 과목들을 독립하는 방향으로 정했다"고 전했다. 이어 "다전공자나 '전과생'에 대한 논의는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학사지원과 김경희 과장은 "재수강 문제 등 때문에 전공기초 학수번호를 부여할 때 공과대학 측에 여러가지 가이드라인을 주기는 했었다"며 "하지만 공대 측에서 전공기초라 하더라도 학과간 내용이 조금씩 다르게 가고 있다는 입장은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공과대학 학과사무실 관계자는 "16년 학사제도 개편을 앞두고 현재 제도가 변화하는 중에 있으며 (공과대학이) 향후에는 각 과목들을 독립하는 방향으로 정했다"고 전했다. 이어 "다전공자나 '전과생'에 대한 논의는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학과 간 과목 인정여부는 비단 단일 캠퍼스 내부에서의 문제만이 아니다. 캠퍼스 간 유사 전공기초 인정 문제는 위에서 지적된 해당 학과별로 상이한 적용기준의 문제에 '캠퍼스 이원화'라는 특수성이 겹쳐져 있어 매우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가령 서울캠퍼스(서울캠)의 경우 경영학 관련 전공기초 과목들인 '경제학 원론', '경제통계', '회계원리' 등은 서울캠 내의 각 단과대학마다 학수번호는 다르지만, 국문명과 교과목코드(외부로 드러나지 않는 해당 과목 고유의 내부코드)가 동일하다는 이유로 공통 인정을 받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같은 전공기초 과목들을 운영하고 있는 국제캠퍼스(국제캠)의 국제대학의 경

우에는 위의 과목들이 이수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 국제대학에서 개설되는 동일한 내용의 강좌는 그 공식 명칭이 '영문'이므로, 국문으로 이뤄진 서울캠의 세 과목과는 서로 다른 과목이라는 것이 이유다. 양쪽 수업을 모두 수강하게 된 학생들은 두 수업이 서로 동일한 내용임에도 '다른 과목'으로 분류되는 상황에 어리둥절해 할 뿐이다. 경영학과를 다전공 중인 서건우(국제학 2010)군은 "국제학과에선 같은 내용의 수업을 단지 영어로 진행한다는 것 밖에는 차이가 없는데, 서울캠에 와서 이 과목들을 다시 들어야 한다는 것이 황당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러한 학과 간 과목 인정여부에 대해 경영학과 행정실과 국제학과 행정실 관계자들은 모두 '해당 과목들의 인정여부에 관한 논의는 진행된 적 없다'는 공통된 입장을 보여, 이 문제에 대한 양 캠퍼스 간의 조율이나 논의의 구조가 부재한 상황임을 보여주었다.

한편, 이러한 현상은 전공기초 뿐만 아니라 교양과목에서도 나타난다. 양 캠퍼스의 교양과목을 담당하고 있는 '후마니타스 칼리지'는 캠퍼스별로 다른 커리큘럼을 지니고 있어 같은 영역의 배분이수 교과라도 서로 간의 인정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서울캠퍼스 후마니타스 칼리지의 행정실 관계자는 "현재 서울캠퍼스 소속

“

**국제캠 교무처 측, 충분히 검토
가 필요한 사안이며 캠퍼스간
의 유연한 운영을 기대**

”

생이 국제캠퍼스 과목을 수강한다면 모두 '자유 선택 교과(군사학, 취업스쿨, 학점교류 등 내부 교육과정이 아닌 이수 구분단위)'로 분류되게 된다"며 "그간 계절학기 등 일부 예외사항이 있어 왔지만 원칙적으로는 동일 국문명으로 양 캠퍼스에서 열리는 수강과목의 경우 소속 캠퍼스에서 수강해야 하며, 국문명이 달라 교차수강신청이 가능한 교양과목에 대해서는 자유·배분이수 학점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제캠퍼스 후마니타스 칼리지 행정실 장수영 행정계장 역시 "교과목에 관해선 양 캠퍼스의 후마니타스 칼리지가 예전부터 다르게 운영되고 있어 교과목 인정여부 논의는 어려운 문제"라며 "학생들이 서울캠퍼스에서 교양과목을 수강해 오면 해당 단과대학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중이다"고 밝혔다.

후마니타스칼리지, 서울캠과 국제캠 사실상 '독립 운영'

결국,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 칼리지'는 사실상 서울캠과 국제캠에서 서로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상황이며, 캠퍼스 간 수강과목 인정여부에 대한 교감은 그간 잘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인 셈이다.

'수강과목 인정여부'를 둘러싸고 발생하는 이와 같은 여러 논의에 대해, 국제캠 교무처는 '관련 대상자들의 권한 확대'와 '유연성'에 관한 입장을 내비쳤다. 국제캠 교무처 박광현 처장은 먼저 현재의 전공기초과목 인정여부 시스템에 관한 문제제기에 대해 "(타 학과에서 다전공을 이수하려 오는 학생들에 대하여) 유사 과목 인정여부에 관한 학과장의 판단 권한을 강화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어떤 '인정 체계'가 필요함을 느낀다"며 공감을 표시한 후, "융합학문의 시대에 위와 같은 문제점들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들이 것 같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교양과목 등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도 박처장은 "지금은 다소 독립적인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어 행정적인 '벽'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지금보다 다소 시간이 흐른 후에는 비록 학교가 나뉘져 있지만 서로간의 유연한 운영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5학년도 하계 계절학기 개설 안내 (서울·국제)

1. 계절학기 주요 일정	
구분	일시
개설과목 확인	2015.05.01(금) 경희대학교 홈페이지 '학사안내'
학점교류생	추첨기한 : 2015.05.27(수) 17:00 까지 학번부여 SMS 안내 문자 발송
수강신청기간	2015.06.1(화) 10:30 ~ 06.05(월) 개설학기 시작과 함께 수강신청 및 등록금 납부
폐강고지	2015.06.15(금) 12:00 (1차) 2015.06.19(금) 09:00 (2차) 경희대학교 홈페이지 '학사안내'
등록금 납부기간	2015.06.08(화) ~ 06.18(화) 16시 하나은행 가상계좌로 납부
수강신청기간	2015.06.16(화) ~ 06.17(수) 17시 후마니타스칼리지 행정실 방문 (폐강과목 수강생)
수강기간	2015.06.22(월) ~ 07.19(월)
성적발령(정말기)	2015.07.15(수) ~ 07.16(목)

1) 일력사항 : 학년 2015학년도, 학기) 여름학기, 학번) 경희대학교에서 부여된 본인의 학번을 입력 후 조회
2) 확인사항 : 신청과목과 납부금액, 본인에게 부여된 하나은행 계좌번호 확인
3) 납부방법 : 생성된 계좌번호로 등록금 납부
 1) 본교 홈페이지 및 오픈포털 학생의 개설학기 시작과 함께 수강신청 및 등록금 납부
 2) 등록금 납부 이후 수납이 불가하오니 등록기간 내에 완납하기 바랍니다.

5. 등록 후 수강취소 및 환불

환불기준

기간

환불금액

수강취소방법

수입개시일 전까지

등록일 ~ 2015.06.19(금) 17:00

전액 환불

수입개시일 1/3 경과 전

2015.06.22(월) ~ 06.26(금) 17:00

수입금 2/3 환불

수입개시일 1/2 경과한 날부터

2015.06.29(월) ~ 07.01(수) 17:00

수입금 1/2 환불

수입개시일 전 경과 후

반환하지 아니함(수강 취소 불가)

※ 환불금액은 지급일로부터 환불금액의 10%를 차감합니다.

수입금은 환불금액과 함께 환불됩니다.

* 환불금액은 지급일로부터 환불금액의 10%를 차감합니다.

수입금은 환불금액과 함께 환불됩니다.

* 환불금액은 지급일로부터 환불금액의 10%를 차감합니다.

수입금은 환불금액과 함께 환불됩니다.

* 환불금액은 지급일로부터 환불금액의 10%를 차감합니다.

수입금은 환불금액과 함께 환불됩니다.

* 환불금액은 지급일로부터 환불금액의 10%를 차감합니다.

수입금은 환불금액과 함께 환불됩니다.

* 환불금액은 지급일로부터 환불금액의 10%를 차감합니다.

수입금은 환불금액과 함께 환불됩니다.

* 환불금액은 지급일로부터 환불금액의 10%를 차감합니다.

수입금은 환불금액과 함께 환불됩니다.

* 환불금액은 지급일로부터 환불금액의 10%를 차감합니다.

수입금은 환불금액과 함께 환불됩니다.

* 환불금액은 지급일로부터 환불금액의 10%를 차감합니다.

수입금은 환불금액과 함께 환불됩니다.

* 환불금액은 지급일로부터 환불금액의 10%를 차감합니다.

수입금은 환불금액과 함께 환불됩니다.

* 환불금액은 지급일로부터 환불금액의 10%를 차감합니다.

수입금은 환불금액과 함께 환불됩니다.

* 환불금액은 지급일로부터 환불금액의 10%를 차감합니다.

수입금은 환불금액과 함께 환불됩니다.

* 환불금액은 지급일로부터 환불금액의 10%를 차감합니다.

수입금은 환불금액과 함께 환불됩니다.

* 환불금액은 지급일로부터 환불금액의 10%를 차감합니다.

수입금은 환불금액과 함께 환불됩니다.

* 환불금액은 지급일로부터 환불금액의 10%를 차감합니다.

수입금은 환불금액과 함께 환불됩니다.

* 환불금액은 지급일로부터 환불금액의 10%를 차감합니다.

수입금은 환불금액과 함께 환불됩니다.

* 환불금액은 지급일로부터 환불금액의 10%를 차감합니다.

수입금은 환불금액과 함께 환불됩니다.

* 환불금액은 지급일로부터 환불금액의 10%를 차감합니다.

수입금은 환불금액과 함께 환불됩니다.

* 환불금액은 지급일로부터 환불금액의 10%를 차감합니다.

수입금은 환불금액과 함께 환불됩니다.

* 환불금액은 지급일로부터 환불금액의 10%를 차감합니다.

수입금은 환불금액과 함께 환불됩니다.

* 환불금액은 지급일로부터 환불금액의 10%를 차감합니다.

수입금은 환불금액과 함께 환불됩니다.

* 환불금액은 지급일로부터 환불금액의 10%를 차감합니다.

기획

정보공개청구 시행 3년차, 담당부서조차 ‘물음표’

정보공개청구 제도이용 실태

이수형 기자 dltbd112@khu.ac.kr
김규래 기자 rlarbf041@khu.ac.kr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립대학 역시 정보공개의무 대상이다. 이에 따라 지난 2012년 11월 우리학교도 관련 규정으로 〈정보공개규정〉을 마련했다. 이후 2013년부터 제도가 본격 시행됐고, 현재 3년차에 접어들었다. 하지만 아직까지 규정내 ‘정보공개청구’라는 제도는 구성원에게 낯설다. 이에 우리신문은 직접 정보공개청구제도를 이용해보고, 관련 실태를 짚어봤다.

3년간 정보공개청구 18건에 불과 '이송절차' 등 인지도 낮아

결국 총무팀을 직접 방문해 접수해봤다. 〈경희대학교 정보공개청구 제도 이용 건수 및 내용〉은 총무팀에서 원활히 접수가 이뤄졌다. 하지만 〈교수 징계 청구 내역과 징계사례〉는 ‘타부서 담당’이라는 답이 돌아왔다. 재신청을 하고자 찾은 교무처에서는 총무팀 담당이라며 다시 접수를 거절했다. 이미 총무팀에서 오는 길이라고 설명한 뒤에야 신청이 이뤄졌다.

이는 아직 우리학교가 정보공개청구제도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사례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접수부서가 담당조직이 아니더라도, 담당조직을 알 경우 이송처리를 해주도록 돼있기 때문이다. 우리학교의 정보공개청구 건수는 2013년 4건, 2014년 11건이었다. 올해는 4월까지 3건이었다. 정보공개청구가 비교적 활발한 국립대의 경우 2013년 한 해에만 60건(강원대), 57건(부산대), 59건(충남대) 등이었다.

법률규정보다 빠른 행정처리 비공개 처분은 국립대 대비 높아

〈경희대학교 정보공개청구 제도 이용 건수 및 내용〉에 대한 답은 지난 14일 돌아왔다. 휴일을 제외하고 6일만이었다. 이는 청구일을 기준으로 10일 이내, 연장시 최대 20일 이내 답하게 돼있는 법률에 비해 빠른 처리였다. 답변은 ‘공개결정’에 따라 요구한 정보가 모두 기입돼있었다. 반면 〈교수 징계 청구 내역과 징계사례〉는 지난 13

The screenshot shows the Kyung Hee University LibGuides page for the Freedom of Information Act. It includes sections on the Act's purpose, contact information for the Office of the Vice President for Administration (총무팀), and a note about the system being experimental. A search bar and navigation menu are also visible.

이런 모습은 자체 시스템을 통해 정보공

기준 및 지금 규모 인원’ 등 범위가 길고, 담당부서가 여러 곳인 경우가 대다수였다. ‘경희대학교 가로등 개수’, ‘000이 청송교도소 출소 후 곡성 군청 주차요원으로 특채된 이유를 아시는지 여부’ 등 황당한 내용 역시 존재했다. 총무팀 박우현 계장은 정보공개제도의 가치나 중요성을 높게 평가하면서도 “그 목적과 달리 주로 논문을 쓰거나 자료취합을 위해 정보공개청구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대학정보공시제를 통해서도 상당부분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점도 강조했다.

현재 대학정보공시사이트 ‘대학알리미’ (<http://www.academyinfo.go.kr>)에는 등록금현황, 성적평가 결과, 재적학생 현황, 졸업생의 취업현황 등 14개 항목 63개 지표가 공개돼있다. 별도의 청구절차를 거치기 이전에 1차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정보가 상당한 셈이다.

현재 정부의 정보공개청구 건수가 증가세임을 감안할 때 우리학교 역시 행정부담은 줄이면서, 법적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타 대학과 같이 사전정보공개 등을 이용해 공개할 수 있는 정보를 모아놓는 한편, 올바른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구성원의 교육도 고려해봐야 한다.

경희 미래협약 이을 ‘구성원 선언문’, 인권센터 설립 요구 명시

노동조합 ‘존중합의문’ 발표

이승연 기자 leesy0317@khu.ac.kr

노동조합(노조)에서 추진한 ‘상호존중 대학공동체 문화 정착을 위한 구성원 선언문’이 발표됐다. 내용은 2011년 구성원간 합의에 의해 도출 됐던 ‘미래협약’과 내용을 공유하고 있다. 교수의회 의장, 각 캠퍼스 종학생회장, 대학원 종학생회장, 노조 위원장으로 이뤄진 구성원 대표가 주체가 된 선언문은 지난달 발생한 협정박물관 사건을 계기로 구상됐다.

선언문의 내용은 미래협약에서 명시했던 교수, 직원, 학생 간 권리와 의무 내용과 동일하다. ▲교수는 학습자이자 삶의 후배인 학생(대학원생)의 인격과 권리를 존중하며 성실과 신의를 다할 것 ▲교수는 직원을 학술과 실천 활동의 협력자, 행정의 전문가로 존중할 것 ▲교직원은 교수를 교육·연구의 주체로서 명예와 권리를 존중할 것 ▲교직원은 미래의 주연인 학생의 인격과 권리를

존중하며 성실과 신의를 다할 것 ▲학생은 교수를 교육·연구자이자 삶의 선배로서 존경심을 갖고 대할 것 ▲학생은 직원을 행정전문가이자 ‘강의실 밖의 교육자’로 대할 것 등이다.

노조 송혜경 위원장은 “2011년도에 추진했던 미래협약은 실현되지 못했다”며 “당시의 좋은 취지를 잘 살려 매년 개교기념일 즘은 가지씩 실천안을 도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당시 구성원과 언론의 주목을 받았던 미래협약은 유명무실화된 상태다.

당시 미래협약은 ‘더 나은 공동체, 존경받는 대학’이라는 비전아래 각 캠퍼스 부총장과 의무 부총장, 재정부총장, 교수의회 의장, 의학계열지회장, 국제캠퍼스회장, 각 캠퍼스 학부·대학원 종학생회 등이 공동추진위원장으로 나선 거교적인 차원의 일이었다. 구성원별 협약 외에도 ‘상호연관성’, ‘종체성과 안전성’, ‘배려와 존중’, ‘투명성과 윤리성’, ‘대학의 공공성’이라는 5개의 핵심가치를 제시했다. 또한



윤리강령 제정, 지역사회와 공존, 비정규직 문제 해결 등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도 명시했다. 하지만 선언 이후 이렇다 할 활동이 없어 수사에 그쳤다는 비판도 나왔다.

당시 미래협약의 사무국 업무를 담당했던 서울캠퍼스 학생지원처 서병식 과장은 “구성원 합의하에 선포됐지만 후속적 노력이 부족했다”며 “미래협약 사무국의 적극

적인 역할이 미비했던 부분에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노조는 미래협약과 내용은 공유하지만, 이번엔 실효성이 없는 선언에 그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선언문과 함께 ‘상호존중 대학공동체 문화 정착을 위한 경희구성원 요구(요구안)’에 대한 의견도 수렴한 상태다. 선언문과 마찬가지로 요구안도 각 구성원 대표와의 합의로 이뤄졌다. 요구안

은 ▲대학은 구성원간 상호존중 문화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관련 사안을 논의할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해, 실천방안을 모색하고 세부지침을 마련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것 ▲대학은 모든 구성원의 인격과 권리를 존중하고 학교 내 소수자를 배려하기 위한 인권센터를 즉시 설립해 운영할 것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미래협약을 반면교사 삼아 대학본부에 실천을 위한 기구를 요구한 것이다. 송 위원장은 “이러한 기구를 통해 학교 층이 주가 돼서 의견수렴과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닌 각 구성원 대표들이 들어가 새로운 위원회를 꾸려야 한다”며 “현재 학교엔 이러한 기구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미래협약 체결 당시에도 미래협약의 실행과 지속적 발전을 위한 독립기구로서 ‘미래협약실천위원회’를 운영할 계획했지만 현재와 같은 결과를 면하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대학본부가 요구안에 따라 새로운 실천기구를 수용한다고 해도, 실질적인 활동으로 이어질지 미지수다.

미디어 기술 발전, 사·공간 격차 없애

특별기고 - Giga Korea

서덕영
전자전파공학
교수



성경에 medium이란 말이 나온다. 영매(靈媒) 또는 무당을 말한다. 신과 인간의 중간에서 소통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Media는 medium의 복수형이며 인간과 인간의 중간에서 정보를 전달하는 수단을 말한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므로 인간과 인간 사이를 잇는 미디어가 중요하고 다른 기술보다 급속하게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이는 IT 기술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바뀐다고 한 '무어의 법칙'이나 '황의 법칙'으로 예견되고 있다. 무어의 법칙에 의하면 18개월에 계산속도(즉, 컴퓨터의 속도)는 2배씩 빨라지고 있다. 이는 여러분들이 지난 10년 간을 되짚어보면 충분히 느낄 것이다. 여러분의 PC가 10년전에 MHz로 얘기되었던 것이 이제 GHz 단위로 얘기된다. 이렇게 도구들이 강력해지면 사람도 강력해지지 않겠는가? 거기에 따라 사회도 엄청나게 바뀌게 될 것이다.

Giga Korea에서는 새로운 break-through가 일어난다.

우리나라의 정보통신이 추구하고 있는 비전은 Giga Korea라는 말로 요약된다. 2020년 무렵에 메모리가 지금의 천배, 계산속도가 천배, 전송속도가 천배가 되는 것이다. 미디어 기술은 메모리, 계산속도, 전송속도에 크게 영향을 받는 기술이다. 여러분들도 동영상을 다루다 보면 메모리가 부족하거나, 계산이나 전송이 번번거리는(?) 것을 경험하였을 것이다. 이런 현상들이 없어진다는 뜻이다. 그래서 미디어의 기본 목표인 transparency(투명성)을 달성할 수 있다. 공간적으로, 또는 시간적으로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 간격을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첫째, 올트라 짱(!) 품질 좋은 미디어를 전송할 수 있다. 최근 K-pop 홀로그램 공연장이 개소했다. 홀로그



램 무대에서는 실제로 그 무대에 존재하는 가수와 홀로그램을 이용해서 보여지는 가수가 같이 춤을 추고 공연을 한다. 관중은 어떤 가수가 진짜인지 구분할 수 없다. '구분할 수 없다'라는 것은 그만큼 전송해야하는 정보가 많다는 것을 말하고, 정보가 많은 만큼 수행해야하는 계산양도 많고, 저장하기 위해 필요한 메모리도 많아야 한다. 이미 가정마다 많이 보급된 HDTV는 라인수가 천개(1K)정도 된다. 최근 팔리기 시작한 Ultra HDTV는 라인수가 4천개(4K)가 되면서 처리해야 할 정보량은 HDTV의 16배가 되었다. 그런데 홀로그램의 정보량은 그것의 수백배다.

둘째, 눈깜짝하는 사이에 전달된다. '눈깜짝할 사이'는 보통 0.3초라고 한다. 여러분들이 집에 들어와 있는 IPTV에서 어떤 영화를 선택하면 보통 5~10초이후에 시작된다. 또한 TV뉴스에서 앵커가 중동지역에 과견나가 있는 기자를 불러 서로 대화를 할 때 보면 약간의 지연을 느낄 수 있다. 그리고 보이는 동영상과 소리가 시간이 맞지 않는 것을 느낄 때도 있다. 립싱크 가수가 노래부를 때, 영상과 소리가 맞지 않는 것과 비슷하다. 이러한 시간적인 왜곡을 줄이는 것이 transparency의 또 하나 중요한 요소이다. 지연이 매우 중요한 응용 사례

로는 원격수술을 들 수 있다. 보통 동영상에서는 영상과 소리사이에 시간 차이를 줄이는 것이 필요하지만, 원격수술에서는 시각과 촉각의 시간차 이를 줄여야 한다. 즉, 의사가 보고 있는 환부의 모습과 손으로 느끼는 촉각이 일치해야 한다. 그런데 보통 촉각은 다른 감각기관보다 자연에 매우 민감하다. 물리적으로 다다를 수 있는 가장 빠른 전송속도는 빛의 속도이다.

빛의 속도는 1초에 30만km이다.

서울·부산간 빛의 속도에 의한 정보 지역은 천분의 1초정도이다. 유럽에서는 5세대 모바일망에서 이를 달성해야 한다고 목표를 잡고 있다.

모든 인류가 강력한 미디어를 자유자재로 쓸 수 있게 될 것

셋째는 모두 같이 즐길 수 있다. 집단지성(collective intelligence), 크라우드 펀딩(crowd funding), 빅데이터 등의 공통점은 수많은 평범함이 모여서 하나의 비범함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미디어에서도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

예를 들어, 구글맵의 Google drive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여 거리뷰를 연속적으로 만들어 낸 것이다. 심지어는 사막에서 낙타를 타고

가면서 찍은 거리도 포함한다. 현재 많은 차들이 차량용 블랙박스를 장착하고 있다. 모든 차량에서 찍히고 있는 동영상들이 실시간으로 합쳐져서 새로운 콘텐츠가 될 수 있다. 야구장에서 관중들이 자신의 스마트 폰으로 찍은 동영상들과 드론이 빙빙 날아다니면서 찍고 있는 동영상을 실시간으로 합쳐서 새로운 콘텐츠로 즐길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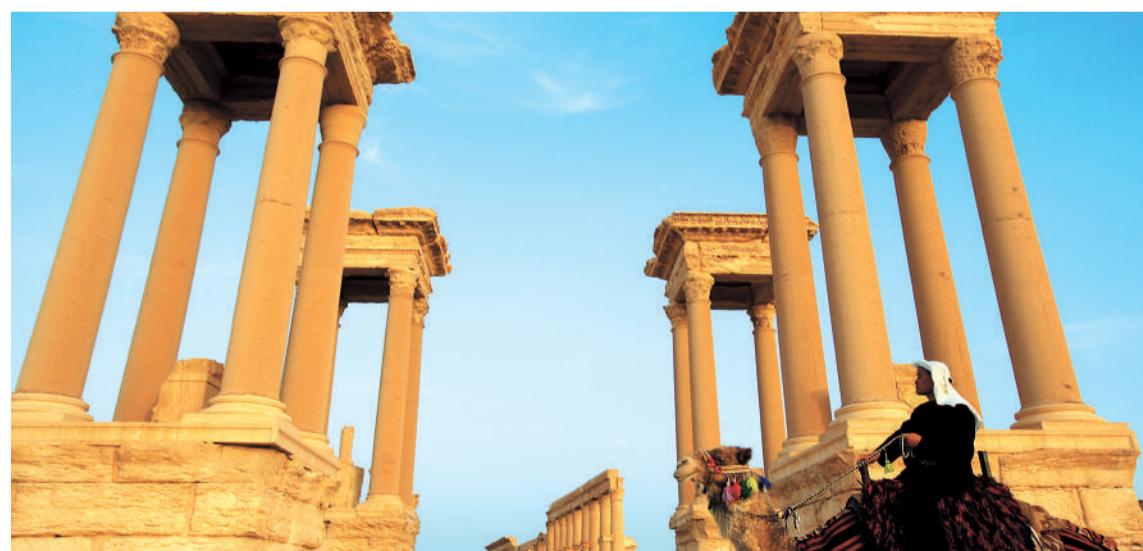
'인간이 도구를 만들고, 도구가 인간을 만든다' 만들어진 도구가 강력하면 그만큼 그것 때문에 인간사가 바뀌는 정도도 커질 수밖에 없다. 15세기에 발명된 구텐베르그의 금속활자 를 이용해서 독일어로 번역된 성경을 찍어내어 마르틴 루터는 1000년의 종세 암흑시대를 끝내버렸다. 구텐베르그 이전에도 책은 있었다.

그러나 대량으로 찍어내어 대중에게 보급하면서 비로서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었다. 지금의 홀로그램 공연장이나, 원격수술, 구글 drive는 막대한 자금 동원력이 있는 이들이 소규모로 활용하는 미디어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Giga Korea가 성공한다면, 모든 인류가 강력한 새로운 미디어를 자유자재로 쓸 수 있게 되는 것이다. 21세기에는 어떤 마르틴 루터가 나타나서 또 어떤 혁명을 이룰 것인가?

▶ 1면에서 이어짐

전쟁에 대한 설명보다 전쟁이 일어나기까지의 역사적 배경, 주변 상황 심지어 당시 사람들의 문화와 세계관 등 고대세계 전반에 대한 이야기가 더 많이 나온다. 페르시아 전쟁에 대한 지식만을 기대하고 읽는다면 『역사』는 아주 산만한 책이겠지만 특정 사건에 국한하지 않고 고대 서구세계를 이야기하는 책이라 생각하면서 읽는다면 오히려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많다.

무엇보다 『역사』에 등장하는 인간들의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여러 생각을 던져준다. 잘 알려진 이야기 하나를 들어보자. 리디아의 마지막 왕 크로이소스는 고대 세계에서 손꼽히는 부자였다. 그는 그리스의 현자 솔론에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인지 물었다. 당연히 자신일거라 생각하며 질문했지만 솔론의 대답은 왕의 기대와 달랐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죽을 때 행복한 사람입니다. 저는 폐하께서 행복하게



무엇보다 『역사』에 등장하는 인간들의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여러 생각을 던져준다.

생을 마감했다는 것을 알기 전에는 물음에 답할 수 없습니다. 누구든 죽기 전에는 행복하다고 말하지 마시고 단지 운이 좋았다고 하소서." 모든 것을 가졌다고 생각했던 크로이소스는 후일 페르시아 키루스왕과의 전투에서 패배하고 리디아는 멸망한다.

그렇다면 크로이소스의 리디아를 정복하고 세계적인 대제국 페르시아를 건설한 키루스는 자신의 삶을 어

떻게 생각했을까? 지금도 남아있는 키루스의 무덤에는 그가 남긴 짧은 유언이 새겨져 있다.
"오! 인간이여,
그대가 누구인지 어디에서 왔는지
는 모르나
나는 키루스, 바로 페르시아 제국
을 세운이로다.
내 무덤을 덮은 한 줌의 흙 때문에
나를 부려워하지 말지어다."

참여마당

구아람
경영학(2014)



기숙사 입사 기준 현실에 맞게 고쳐져야

먼 거리에서 통학하는 학생들에게 통학문제는 해결하기 힘든 고민거리다. 특히나 경기, 인천 지역에 사는 학생들에게 이 문제는 이리지도 저리지도 못하는 딜레마가 되기도 한다. 행복 기숙사를 제외한 우리학교의 기숙사 신청 자격은 '서울, 경인 지역 학생 제외'라는 조건을 포함하고 있다. 이 조건은 서울, 경인지역에 사는 학생들이 타 지역 거주학생에 비해 통학하기가 더 수월할 것이라는 예상을 전제로 제정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실상은 예상과 다르다. 실제 서울, 경인지역에 사는 학생들 중 다수가 통학문제 때문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 심지어 하루에 왕복 5시간을 통학시간으로만 써야하는 학생들도 생겨난다. 물론, 경인지역 이외 지역에서 거주하는 학생들은 아예 통학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이들에게 기숙사를 우선 배정해야한다는 논리는 타당하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똑같이 통학에 불편을 느끼고 힘들어하는 서울, 경인지역 학생들에게 기숙사에 '신청할 수 있는 기회'조차 주지 않는 것 또한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 기숙사생 선정 기준에 약간의 변화를 줄 필요가 있다. 다른 학교의 기숙사 선정 기준을 살펴보면, 먼저 특정 지역 학생들을 배제시키지 않고 무작위로 선발하는 방식이 있다.

서울, 경인지역 학생들에게 기숙사에 '신청할 수 있는 기회' 조차 주지 않는 것 또한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이다.

다른 방식으로는 학생의 거주지에서 학교까지의 거리에 등급을 매겨 선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은 예를 들어 캠퍼스 기준 반경 25km 이외 거주자를 1순위, 15km~25km이내 거주자를 2순위, 15km 이내 거주자를 3순위로 등급을 매긴 후, 성적순으로 선발하는 것이다. 이 방식의 경우 같은 거리 순위에서는 차이를 두지 않고 선발한다는 장점을 갖는다.

실제로 우리학교에서 기숙사 신청이 가능한 준천지역과 불가능한 송도, 수원지역이 지하철 통학시간은 거의 비슷하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위의 방식이 상당히 형평성을 고려한 방식임을 알 수 있다.

학교에서 운영하는 통학버스의 노선과 배차간격을 더 조밀하게 하고 이를 학생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이용을 활성화시키는 방법도 있다. 현재 우리학교에서 운행되고 있는 통학버스는 노선이 다양하지 않고 무엇보다도 운행시간이 아침과 저녁 하루에 2번 뿐이어서 학생들의 통학에 도움을 주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제다가 이러한 통학버스가 있다는 사실 조차도 모르는 학생들이 많다. 이 때문에 일부 지역의 노선이 수요 부족으로 폐지되기도 한다. 통학버스를 학생들이 직접 비용을 내고 신청해야한다는 점에서, 학생들에 대한 홍보를 통해 수요를 늘리고 버스노선과 시간 대를 확대하는 방식은 통학생들의 불편을 당장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도 있는 방편이라고 생각한다.

2015학년도 2학기 교내장학금 신청 안내

"재학생 모두 신청하세요~!"

1. 신청기간 및 대상

- 신청기간 : 2015. 5. 22(금) ~ 6. 30(화)
- 신청대상 : 정규학기 학부 재학생 전체
- * 1. 우정장학금 "2015-2학기 국가장학 1차 신청"과 "교내장학금 신청"을 원료하여야 지원 가능함.
- 2. 기존 교내입시/보통 경희기록/고시 등·교외 계속장학생도 반드시 교내장학금 신청
- 3. 장학규정에 의거, 장학금은 신청자에 한하여 지원하며, 신청기간 외 신청 불가.

2. 신청방법

구분	내 용
종합정보시스템 → 인터넷신청 → [장학/융자신청] → 「교내장학금, 신청	
신청방법	1. 교내장학금 신청으로 "우수학점, 우정장학, 모범장학, 밝은사회장학" 등의 모든 장학 신청이 원료됨. - 모자이크장학 등 특성화장학만 별도로 주어진 시기에 신청 2. 경학신청서, 경학금기록계획, 자기소개서 등의 온라인 작성은 필수이며, 신청서는 제출 생략 3. 가족연락증명서 제출 생략 * 국가장학 1차 신청에 나오는 소득분위에 의거 기계고장 학장 자금. 4. 장학 신발자기 2015-2학기 미등록시 신발자기 취소됨.
서류제출 장소 (해당자에 한함)	구 분 소속대학 행정실 - 고시합격자(신규) : 고시합격증명서 부 - 경학생, 학생부의 장애증명서 혹은 등록증명서 - 보통장학(신규) : 대학교학금 및 일련번호증명서 (보호자 첨부) 1부 - 1. 중·고등장학금 신청자, 보통 경학증명서 등 2015-2학기 보통장학자는 조수와 함께 신청 - 교환학생은 교환학기 성적처리가 원료되어야 학점 지급 가능
지급 제한	장학금 규정에 위배된 자 - 지급방법 : 등록금 고지서에 학비면 - 등록방법 : 등록금 고지서에 지정금 금융기관에서 반드시 등록을 필해야 함. * 고지서 납부금을 수령한 경우는 등록금을 지급하는 금융기관에서 등록 철회(등록수정)해야 함.
참고사항	1. 경학 신청 7주(우수학점은 네온다) 관련 세부사항은 학생 소속 단과대학(전공) 행정실로 문의 2. 전과생의 경우 전공(전공)에 있는 소속 단과대학 학부(교과)에서 신청하는 우수장학, 모범장학금은 수령할 수 없음(단, 우수장학금 수령은 가능하며, 전입 회망 대학 행정실에 교내장학금 신청서 별도 제출 요망). 3. 위 기간 내외 장학금 미신청자는 2015-2학기 장학금 신발대상에서 제외됨.

서울캠퍼스 학생지원처

특집 · 안전



술취한 학생 상대, 가장 큰 고충 “학생들과 생활하는 것이 즐겁다”

인터뷰 – 제2기숙사 김원동 경비팀장

이성민 기자 lsm1590@khu.ac.kr

#. 그저께는 새벽 4시 40분 잠에서 깼다. 간단히 샤워를 하고 출근 준비를 시작했다. 5시 30분 출근길에 올랐다. 집에서 학교까지는 30여 분, 매일같이 오전 6시에 학교에 도착했다. 제2기숙사로 향했다. 새벽근무를 한 사람과 교대했다.

주간업무의 시작은 벗자루를 들고 기숙사 주차장에 떨어진 담배꽁초와 사람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를 치우는 일이다. 그리고 나서 작은 부스에 앉아 다시 업무를 본다. 주된 일은 출입구 통제다. 카드가 없는 학생부터 외부인 출입통제 등 학생들의 민원 해결까지 기숙사의 전반적인 안전을 책임지고 있다. 오전 11시 점심을 먹었다. 점오까지 잠깐 동안의 휴식을 취하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다. 그리고 저녁 6시까지 자리를 지키며 학생들이 오가는 모습을 지켜본다. 야간 업무를 보는 사람이 찾아왔다.

그리고 오늘은 야간근무다. 저녁 6시에서 자정까지는 비교적 평온한 분위기다. 하지만 자정을 넘어가면서 밀려오는 졸음과 함께 술에 잔뜩 취한 학생들이 들어오기

시작한다. 다행히 자정부터 새벽 1시까지는 멘토 학생들이 도와주기 때문에 한 시름 덜 수 있다. 그 사이에 기숙사 전체를 돌며 순찰한다. 멘토 학생이 돌아갈 무렵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다. 계속되는 졸음, 그래도 그곳을 지켜야하기 때문에 한 순간이라도 졸 수 없다. 졸음과 싸우며, 술에 취한 학생들을 하나 둘씩 방으로 보내며, 새벽을 지새운다.

제2기숙사의 안전을 책임지는 김원동(67) 경비팀장과 다른 경비원들의 하루다. 김 팀장은 지난 2011년 4월부터 이 일을 시작했다. 현재 제2기숙사 경비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망포역 주변에 사는 김 팀장은 어느 경비원들과 같이 경비 업무를 보는 동시에 경비원들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우리학교 제2기숙사 소속 경비원은 남자, 여자 기숙사 각각 3명, 체육부 기숙사 2명 등 총 8명이다. 경비원의 가장 중요한 업무는 제2기숙사 출입자 통제다. 제2기숙사는 카드키를 사용해 들어오고 나갈 수 있다. 여기서 경비원들은 외부인의 출입을 철저히 통제한다. 자칫 잘못하면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김 팀장은 “3월에서 4월까지 외부인 출입이 가장 많다”며 “다행히 요즘은 그 수가 많이 줄었다”고 말했다.

말했다.

사실 외부인 출입보다 더 큰 고충은 술에 취한 학생들을 상대하는 일이다. 김 팀장은 이것이 “경비원들이 그만두는 첫 번째 이유”라고 이야기하며, “젊은이들의 술주정을 우리가 왜 받아야 되나”라는 생각이 드는 탓이다. 그래도 팀장으로서 ‘우리도 젊었을 때 학생들처럼 살았을 것’이라고 다독이곤 한다”고 말했다.

오히려 김 팀장은 술에 취한 학생들에 대한 걱정이 많았다. “지금같이 5월, 6월이면 괜찮은데 12월, 1월과 같이 기운이 영하로 내려가면 많이 위험해진다. 저번엔 그때 제2기숙사 앞에서 뭔가 꿈틀거리는 것이 보여 가보니 한 학생이 잠을자며 온 몸을 벌벌 떨고 있었다. 옆의 학생들에게 부축시켜서 얼른 방으로 돌려보냈기 망정이지”

5년 동안 근무하면서 가장 아찔했고, 또 보람찼던 이 기억은 이후로 김 팀장이 새벽 내내 쉬지 않고 자리를 지키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김 팀장은 “학생들 보면 내 손자 같고, 또 내 학창시절도 떠오른다”며 “학생들과 생활하는 것이 즐겁다”고 말한다. 다시 내일이 오고 있다. 학생들을 챙기고, 제2기숙사 주변을 청소하는 일로 김 팀장은 분주할 것이다.

안심귀가 서비스 도입 5개월, ‘이용자 0명’ 학생이용률 높일 방안 찾아야

안심귀가 서비스 운영 실태

이소진 기자 thws924@khu.ac.kr

【국제】 사무처 관리팀에서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안심귀가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지만 이용하는 학생이 전무한 실정이다. ‘안심귀가 서비스’란 학교 내 출발지에 모인 이용자들을 에스원 출동대원이 지정된 학교 밖 장소까지 인솔해 주는 제도다.

안심귀가 서비스는 평일 오후 10시와 다음날 오전 0시에 멀티미디어관 1층 로비에서 각각 출발해 서천동SK아파트 입구까지 안내받을 수 있다. 오후 11시에 중앙도서관에서 출발해 LH아파트로 가는 경로도 시행 중이다. 별도의 사전신청은 필요하지 않고, 출발시간에 맞춰 출발지에서 팻말을 들고 있는 출동대원에게 가면된다.

사무처 관리팀 정태일 계장은 “관리팀에서 취약지역이라고 판단한 멀티미디어관 뒷길과 ‘도서관 뒤 교내 산책로’쪽으로 늦은 시간 하교하는 학생들을 위해 안심귀가 서비스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단과대학 전 부서에 관련 내용에 대한 홍보 메일을 보냈는데도 5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신청자가 한명도 없었다.

제도가 어떤 식으로 시행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기자는 지난 11일 오전 0시에 멀티미디어관 로비에서 서천동 SK

아파트로 가는 안심귀가 서비스를 이용해봤다. 오후 11시 45분, 에스원 박병우 출동대원과 이상우 출동대원이 ‘안심귀가 서비스’라고 쓰여있는 팻말을 들고 이용자를 기다렸다. 비교적 늦게까지 학생들이 캠퍼스에 머무르는 축제 첫날이었지만 역시나 이용자는 없었다. 이 요원은 “홍보가 잘 되지 않아 그런지 이용하는 학생이 지금까지 한명도 없었다”며 “학생이 없어서 팻말만 들고 있다가 그냥 사무실로 복귀하곤 한다”고 전했다.

한편 기자가 이용한 코스는 사람이 거의 다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로등도 없었다. 또한 중간에 있는 굴다리는 측면에서 안이 보이지 않아 위기상황에서 도움을 청하기 어려운 구조였다. 목적지인 SK 아파트 근처는 우리학교 학생들이 많이 거주하는 원룸촌이다. 이 원룸촌도 골목이 좁고 인적이 드물어 범죄가 발생했을 때 대처하기 어려워 보였다.

안심귀가서비스를 마치고 복귀하던 박 병우 요원은 “만일 학생들이 바로 옆에서 동행하는 것을 불편하게 느낀다면 거리를 두고 안전하게 귀가하는지 확인하는 방법으로 바꿀 수 있다”고 말했다. 정 계장 역시 “서비스를 이용하는 학생이 늘어나면 피드백을 받아, 경로나 시간을 다양화하거나 횟수를 늘릴 계획이 있다”며 “현재는 이용하는 학생이 없어 피드백도 없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이어서 “홍보 방안을 찾는 중”이라며 “학생들의 참여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위대함을 향해 갑니다
posco

**자원은 유한하지만
창의는 무한합니다**

자원도, 기술도, 자본도 없었던 포스코가 글로벌 경쟁력 5년 연속 세계 1위의 철강사를 만들 수 있었던 원동력은 끝없는 도전정신이었습니다. 포스코는 지난날의 업적과 영광에 안주하지 않고 더 큰 세상, 더 나은 내일을 만들기 위해 언제나 창의적인 생각으로 POSCO the Great 를 향해 끝없이 도전할 것입니다.